▲ 알파세대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를 소개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직원들.

◀ KT가 최근 오픈베타 버전을 출시한 메타버스 플랫폼 '지니버스'.

▶ MWC SK텔레콤 부스를 둘러보고 있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오른쪽)과 팀 회트게스 도이치텔레콤 회장. 사진제공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메타버스 타고 세계로…통신3사 3색 전략

KT '지니버스'의 AI 홈트윈 이색 우리집 주소 입력하면 그대로 구현

LGU+ '키즈토피아' 알파세대 겨냥 친구들과 퀴즈풀며 게임하듯 학습

SKT '이프랜드' 월 400만명 이용 제휴처 2500개, 글로벌 경쟁력 ↑

통신 기업들이 '메타버스'로 격돌한다. SK텔레콤의 '이프랜드'와 LG유플러스의 '키즈토피아'에 이어 KT의 '지니버스'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신 기업 메타버스 경쟁 구도가 완성됐다. 각 사는 각기 다른 특징의 서비스로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가장 빨리 이 분야를 개척해 성과를 낸 SK텔레콤은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지니버스' '키즈토피아' 오픈베타

KT는 '지니버스'의 오픈베타 버전을 최근 내놨다. 아바타와 공간을 꾸미고, 친구를 초대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장 큰 특징은 AI 공간 모델링 기술을 적용한 'AI 홈트윈' 기능이다. 지니버스에선 캐릭터가 살아가는 공간인 '지니홈'을 만들 수 있는데, 도면 기반 AI 홈트윈 기능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입력하면 메타버스 공간에 현실의 집이 그대로 구현된다. 불특정 다수와 제한 없이 소통하는 기존 메타버스와 달리, 실제로 교류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일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차별점이다.

KT는 멀티모달 기반 '생성AI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사와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이한 KT 융합기술원장(전무)은 "직접 만든 나만의 공간에서 또 다른 상상과 재미를 경험할 수 있는 MZ세대의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키즈토피아' 오픈 베타 버전을 선보였다. 기존의 소셜 및 게임형 메타버스와 달리, 니즈가 명확한 타깃 고객인 알파세대에 특화된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다. 이용자는 아바타를 만들어 테마별로 준비된 체험공간에서 온라인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또 AI 친구들과 대화하고 퀴즈를 풀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도 있다. 김민구 LG유플러스 웹3사업개발랩장은 "향후 다양한 주제의 학습요소들을 지속 추가해 국내 대표 키즈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프랜드' 해외 진출 가속도

2021년 '이프랜드'를 선보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온 SK텔레콤은 협력 기업들 늘리는 한편 서비스를 해외로 확장하고 있다. 한달에 400만 명 이상이 접속하는 성과를 낸 이프랜드는 이미 2500개가 넘는 제휴처를 확보했다. 최근엔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페르소나스페이스와 '메타버스 매니지먼트 공동사업'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해외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해외 진출을 시작한 이프랜드는 12월 전체 MAU(월간 실사용자 수)의 10% 이상을 해외에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글로벌 유수 통신사들과 손잡고 미주, 유럽,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지난 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에서 독일의 도이치텔레콤, 미국의 티모바일US, 동남아 11개국 사업자 악시아타, 말레이시아의 셀콤디지와 메타버스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49개국에 동시 출시한 데 이어, 주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각 국가에 최적화 된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조주완 LG전자 사장, 중남미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외교 특사 자격 브라질·칠레 등 방문 "인류 미래 열 최적의 장소" 지지 요청

LG전자가 다음 달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부산 현지 실사를 앞두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외교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국가를 잇달아 방문해 각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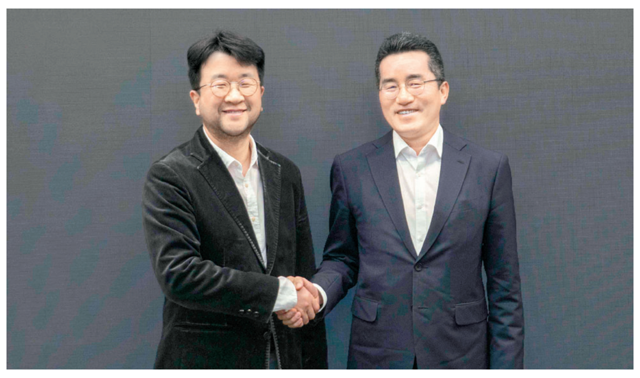
조 사장은 13일 호드리구 파셰쿠 브라질 상원의장을 만난 데 이어 상·하원 의원 15명 등을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 초청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의미와 의지 등을 알렸다. 조 사장은 "부산은 혁신 기술이 결집된 친환경 스마트 시티"라며 "인류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14일 칠레로 이동해 클라우디아 산후에자 외교부 국제경제차관과 세바스찬 고메즈 외교부 양자 경제국장 겸 한-칠 FTA 교섭대표 등을 만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이 수많은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보유한 점과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교통·물류 허브이자 풍부한 문화·콘텐츠 및 세계적 관광 인프라를 갖춘 도시라는 점 등을 소개했다. 조 사장은 앞서 지난해 말 외교부장관 특사 자격으로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한 바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왼쪽)과 호드리구 파셰쿠 브라질 상원의장. 사진제공 | LG전자

한편 LG전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세계 곳곳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근 기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민규 티맵모빌리티 CTO(왼쪽)와 김기혁 SWM 대표. 사진제공 | 티맵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SWM과 자율주행 협력 MOU

티맵모빌리티는 SWM과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WM은 2005년 설립된 자율주행 기술기업으로,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전장 소프트웨어 개발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 및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서울 상암동과 대구 달성군 일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MOU를 시작으로 10월부터 구역 내 자유노선형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는 T맵의 경로탐색, 교통정보, 지도 콘텐츠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 자산을 제공하고, SWM은 구역 내 자유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 구현 전반을 책임진다. 서비스 대상 구간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85km의 강남 일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완성차 업체에 제공 중인 티맵오토 등 인포테인먼트를 접목해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행사 참여

삼성전자는 20일부터 4일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멤버 미팅에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홈 글로벌 표준 연합인 CSA가 134개 회원사, 500명 이상의 멤버를 초청해 매터 표준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 스마트홈 구현을 위한 중요 기술 주제에 대해 비공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CSA가 신규 연결 표준인 매터 1.0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원사 미팅이다. 매터 발표 이후 적용 경과를 검토하고 업체별 전략과 업계 협업 모델을 협의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CSA 보드 멤버로 매터 표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왔다. 최근 매터 컨트롤러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TV, 스마트 모니터,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출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매터 표준에 적합한 스마트싱스 플랫폼 전략을 소개하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통한 자동화 등 주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재연 삼성전자 디바이스플랫폼센터 부사장은 20일 오프닝 키노트 스피치에서 최근 론칭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에 매터 기술을 탑재해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스마트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20일 (월) 음력: 2월 29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사방이 위험으로 막혀있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매사 자신있게 행하라.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전진하라.	운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나쁜 의미로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가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잘 풀리지 않으며 교재비를 많이 쓰게 된다. 머리를 쓰라. 우연히 뭔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 나아가면 상대가 주춤하고 멈춘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무슨 일에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형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매사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오늘의 날씨

20일(월)

지역	강수 확률(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서울	30/20	3	16
인천	30/10	4	12
춘천	20/20	-1	17
강릉	20/20	8	19
대전	20/10	1	19
전주	20/0	3	19
광주	0/0	4	20
대구	20/10	3	20
부산	0/0	9	18
창원	0/0	6	18
제주	10/30	7	17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403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